

## 제6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 “김현 30주기를 맞이하며”

소설 / 김숨



시 / 신동욱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6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1997년 등단해 놀라운 창작 능력과 더불어 최근 역사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숨 소설가와 2001년 등단해 의미 있는 언어 실험을 통한 한국 시의 서정성을 새롭게 갱신해온 신동욱 시인이 그 주인공. 김현문학패 수여식은 2020년 9월 25일(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 김숨—문학, 증언, 역사의 새로운 만남을 탐색하는 전대미문의 도정

김숨 소설가 1974년 울산에서 태어나,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와 1998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침대』 『간과 쓸개』 『국수』 『당신의 신』 『나는 염소가 처음이야』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장편소설 『철』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바느질하는 여자』 『L의 운동화』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너는 너로 살고 있니』 등을 펴냈다. 허균문학작가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악공과 엔지니어가 한몸인 시, 한국 시의 서정의 변혁을 이끌어

신동욱 시인 1977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2001년 『시와 반시』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악공, 아나키스트 기타』,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 『고래가 되는 꿈』, 『밤이 계속될 거야』를 펴냈으며, 산문집 『서정적 게으름』, 시론집 『기억해 봐, 마지막으로 시인이었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펴냈다. 윤동주젊은작가상,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6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_김현 30주기를 맞이하며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한유주 소설가와 성기완 시인을, 제2회 수상자로 김태용 소설가와 이제니 시인을, 3회 수상자로 서준환 소설가와 강정 시인을, 제4회 수상자로 백민석 소설가와 신영배 시인을, 제5회 수상자로 박솔피 소설가와 김경후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6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조강석,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20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2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7~2019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30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6회 수상자로 김숨 소설가와 신동옥 시인을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 제6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 김숨—문학, 증언, 역사의 새로운 만남을 탐색하는 전대미문의 도정

1997년 등단한 이래 작가 김숨의 생산력은 놀라웠다. 이미 스무 권을 넘긴 작품(집)들의 목록이 그 증거다. 그 놀라운 생산력은 단순히 양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 초기작에서 『바느질하는 여자』에 이르기까지 이 작가 특유의 세밀하고도 밀도 높은 문장들은 한국 문학장 내에서 일종의 대항 품행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 김현문학패를 이 작가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더 있다. 고투 속에서 발화되는 모든 문장이 격려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어떤 시점에 특별히, 그리고 각별하게 격려받아야 할 글쓰기가 있는 법이다. 『L의 운동화』와 위안부피해자 증언 소설 연작들(『한 명』, 『흐르는 편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떠도는 땅』에 이르는 김숨의 최근 작업이 바로 그런 글쓰기다. 김숨은 지금 문학과 증언과 역사가 어떻게 만나야 하고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전대미문의 도정 한가운데서 사투 중이다. 애초 ‘김현문학패’의 취지가 ‘의미 있는 문학적 고투에 대한 격려’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선정위원회는 올해 이 문학패를 김숨에게 수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 신동옥—악공과 엔지니어가 한몸인 시, 한국 시의 서정의 변혁을 이끌어

2001년 등단한 신동옥 시인은 가장 낮고 세밀한 기저에서 서정의 변혁을 이끌어 온 시인이다. 신동옥의 시는 동시대 한국시의 기저를 부양한다. 서정의 변혁이 전위와 첨병이 아니라 기저를 만드는 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신동옥의 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불러들이는 것과 초점의 조정을 통해 세계를 확장하는 방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시는 정직하게 증명해왔다. 악공과 엔지니어가 한몸인 시를 써왔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음성적 자질과 의미론적 계기의 낯선 결합을 통해 동시대 현실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렌즈를 베풀어내고 있는 그의 시가 네 번째 시집인 『밤이 계속될 거야』에 이르러 드디어 한국시의 완전한 기저로 자리 잡게 되었기에 문학실험실은 그에게 올해의 김현 문학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문학평론가, 조선대 국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조강석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 김현문학패 소개

###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기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 시행 규정

본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 역대 수상자

제1회 (2015)	시 성기완	소설 한유주
제2회 (2016)	시 이제니	소설 김태용
제3회 (2017)	시 강정	소설 서준환
제4회 (2018)	시 신영배	소설 백민석
제5회 (2019)	시 김경후	소설 박솔뫼
제6회 (2020)	시 신동욱	소설 김숨

### 1942~1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